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 이슈브리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주요 내용

## 국제금융시장

##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 이슈브리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주요 내용 ..... 1

국제금융시장 ..... 3

##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 7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주요 내용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박찬우 (pcw742@kdb.co.kr)

- ◆ 환경부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수립 및 추진’
  - 녹색 부문과 전환 부문으로 구분되며 총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
- ◆ 동 분류체계는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준거로 활용하여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21.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을 발표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정부의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
  - 동 가이드라인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 유럽 연합, 국제표준화기구 등의 국제기준 및 국내 산업 특수성과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마련됨

\* (6대 환경목표)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보전  
④ 자원순환, ⑤ 오염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

- 동 가이드라인은 과잉, 허위 정보와 같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 및 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

##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크게 ‘녹색 부문’과 ‘전환 부문’의 2부문으로 구분되며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

- (녹색 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제시
  -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 포함
  - 또한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 및 관련 기반 시설,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 기후변화 대응, 오염 저감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도 반영하여 총 64개로 구성
  - 반면, 화석연료를 100% 활용하는 경제활동 및 이와 연계된 경제활동은 배제

녹색 부문 주요 경제활동

유형	분야	경제활동
온실가스 감축	산업	탄소중립 핵심기술, 소재 부품 제조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시멘트, 유기화학물질 제조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
	발전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전기 에너지 저장 및 전환
		수송
	도시건물	제로에너지 특화 건물, 도시개발
	이산화탄소포집	이산화탄소 포집, 운송, 영구격리
기후변화 적응	소재부품제조	기후변화 적응 소재, 부품, 장비 제조
물	하폐수관리	하폐수 관리 및 물공급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순환경제	메탄가스활용	메탄가스 포집, 처리 및 활용
	오염	대기 및 해양
생물다양성	생태계 복원	육상, 해양, 산림 생태계 복원

- (전환 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으로 한시적으로 분류체계에 포함
  -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허용하는 LNG발전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반영하여 총 5개로 구성

전환 부문 주요 경제활동

유형	분야	경제활동	비 고
온실가스 감축	산업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30년까지
	발전	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30~'35년까지
		LNG기반 수소 제조	'30년까지
	수송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운송	'30년까지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 사회의 전환에 필요한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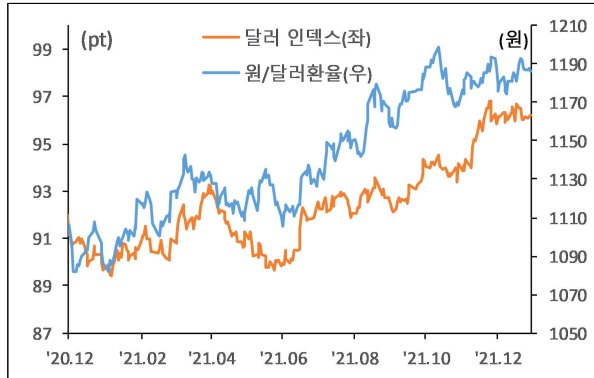
- 금융 및 산업계는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준거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 가능
-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금융권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원 예정
  - 단기적으로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부터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여신, 투자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확대 방안도 추진 예정

# 국제금융시장 12월 동향 및 1월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천 경 원 (cheonkw@kdb.co.kr)  
 장 명 화 (clarajang@kdb.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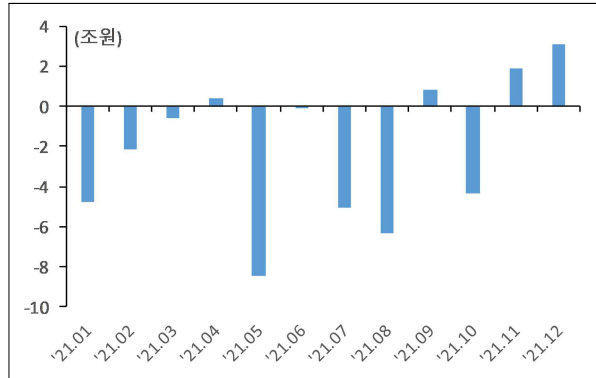
- ◆ **(환율)** 12월 원/달러 환율은 선진국의 통화긴축,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상승하였으나 코로나 치료제 개발 소식 등으로 하락 반전, 1월에는 하락 우위의 보합세 예상
  - ◆ **(금리)** 12월말 주요국 장기금리는 전월말 대비 소폭 상승 마감, 1월에는 전월말 수준을 전후한 보합 등락 전망
  - ◆ **(추가)** 12월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호조세를 보였으며, 1월에도 긍정적인 투자심리가 이어질 전망
- **(환율) 원/달러 환율은 12월 초 1,175원~1,185원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12.21일 1,192원대까지 상승하였으나 12월 말 코로나 치료제 승인 소식에 상승 폭 축소, 1월에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완화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 예상**
- **(글로벌 동향)** 선진국의 통화긴축과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달러화 강세 흐름이 지속되었으나 12월 말 미국의 코로나 치료제 승인 소식 등으로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며 달러인덱스\* 소폭 하락
    - \* 메이저 6개 통화(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대비 달러화 가치
    - FOMC의 테이퍼링 가속화\*, ECB의 '22년 3월 PEPP(팬데믹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 종료 결정, 영국 BOE의 기준금리 인상 등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고자 주요국 중앙은행은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보임
    - \* 12월 FOMC에서는 자산매입규모 감축을 월 U\$150억에서 U\$300억으로 확대하기로 결정,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기존보다 3개월 빠른 '22년 3월 종료될 것으로 예상
    - \*\* ECB는 총 €1조 8,500억 규모의 PEPP를 '22년 3월 종료할 예정, 다만 자산매입프로그램(APP)을 월 €200억에서 €400억으로 증액하여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
    -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12월 중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으나 12월 말 미국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승인 소식, 경제 봉쇄 우려 해소\*등이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
    -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12.21일 긴급 연설을 통해 대책을 발표했으나 시장이 우려한 경제 봉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시장이 안도
  - **(국내 동향)** 글로벌 증시 호황 등에 따라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세 지속
    - 11월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세가 순매수세로 전환된 이후 12월에도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식 순매수세가 지속되며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 연합인포맥스

외국인 주식(KOSPI) 순매수 추이



자료 : 한국거래소(KRX)

- (전망) 1월에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완화, 외국인 국내 주식 매수세 지속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우위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예상 금리인상 시점\*은 앞당겨졌으나 금리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되어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 \* 시장에서는 '22년 3월 양적완화가 종료된 이후 5월~6월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
  -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 S&P지수가 사상 최고치(12.29일 4,793.06)를 경신하는 등 증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의 기대감으로 1월에도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수세가 계속되며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유럽국가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환율 추이

	'19년말	'20년말	'21.11월말	'21.12월말	전월대비
원/달러	1,156.4	1,086.3	1,187.9	1,188.8	+0.08%
달러 인덱스	96.479	89.927	96.273	96.141	△0.14%
달러/유로	1.1219	1.2217	1.128	1.131	+0.28%
엔/달러	108.66	103.26	113.66	114.82	+1.02%

자료 : 연합인포맥스

□ (금리) 12월말 주요국 장기금리는 전월말 대비 소폭 상승 마감, 1월에는 전월말 수준 내외의 보합 등락 예상

- (동향) 12월 주요국 장기금리는 전월비 변동폭이 축소된 가운데 박스권내 혼조세 마감
  -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11월 물가상승률 최고치 경신\*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고조, 오미크론 변이 위력에 대한 안도 등 재료 혼재로 1.3~1.5%대 박스권내 등락을 반복
  - 12.14~15일 FOMC에서 테이퍼링 가속화 결정 및 점도표상 금리 인상시기 조기화 가능성 시사로 금리가 소폭 상승하기도 했으나 이내 안정을 회복
  - \* 생산자물가 상승률 : 전년대비 9.6%↑('10년 이후 최고치), 소비자물가 상승률 : 전년대비 6.8%↑(1982년 이후 최고치)
  - 독일과 일본 장기금리도 대체로 미 국채시장 움직임에 동조하며 전월말 대비 소폭 상승 마감
  
- (전망) '22.1월에는 금융당국의 인플레이션 제어 욕구와 약화된 경기회복 기대감이 대치하며 전월말 수준의 보합권을 등락할 전망
  - 주요 중앙은행들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조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제어에 우선적인 무게를 둘 전망이나, 이미 노출된 재료 이상의 추가 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미 바이든 행정부의 Build Back Better 법안이 1월 중에도 교착상태가 지속될 경우, 대규모 경기부양 기대에 대한 실망감으로 미 국채금리 상향요인이 완화될 가능성

주요국 국채금리 추이

	'19년말	'20년말	'21.11월말	'21.12월말	전월대비
미국채 10y	1.9175	0.9132	1.4443	1.5101	+6.58bp
독일채 10y	-0.1850	-0.5690	-0.3490	-0.1770	+17.20bp
일본채 10y	-0.0110	0.0210	0.0570	0.0710	+1.40bp

자료 : Bloomberg

□ (주가) 12월 주요국 증시는 대체적인 상승세를 이었으며, 1월에도 긍정적인 투자심리가 이어질 전망

- (동향) 12월 주요국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 여파에 대한 우려 등으로 월중 혼조가 있었으나, 대체로 호조를 보이며 전월말 대비 상승 마감
  - 미 증시는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유동성 위축 우려로 FOMC 이후 3일(12.16~20일) 연속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코로나 치료제 사용승인 등에 따른 오미크론 대처력 향상 기대로 연말 주요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
    - \* 월중 최고치 : 다우존스 36,488.63 (29일), 나스닥 15,871.26 (27일), S&P500 4,793.06 (29일)
  - 유로Stoxx50 지수는 유럽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일부 국가들의 방역 조치 재강화\*, 미국 및 영국 등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방향으로 혼조를 보이기도 했으나, 대체로 미 증시와 동조하며 전월말 대비 상승 마감
    - ECB는 긴급자산매입(PEPP)을 '22.3월 예정대로 종료하나 경기부양을 위한 자산매입은 지속할 의지를 나타낸 것도 증시내 우호심리를 지탱
      - \* 오미크론 공포가 발생 초기에 비해 완화되었음에도, 신규 확진자수가 급증한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은 새로운 경제 봉쇄를 발표하는 등 부담 지속
  - Nikkei225 지수도 미 증시와 대체로 동조
- (전망) '22.1월 주요국 증시는 과열 경계감 가운데서도 코로나 치료제 상용화 등에 따른 경기회복 자신감이 이어지며 긍정적인 투자심리가 유지될 전망
  -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전과 같은 봉쇄조치보다는 백신 인센티브 정책을 앞세움에 따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경기 재위축 우려는 제한적일 가능성
  -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있는 만큼 기업실적의 기대 초과 여부를 예민하게 확인하며 반영해갈 전망

주요국 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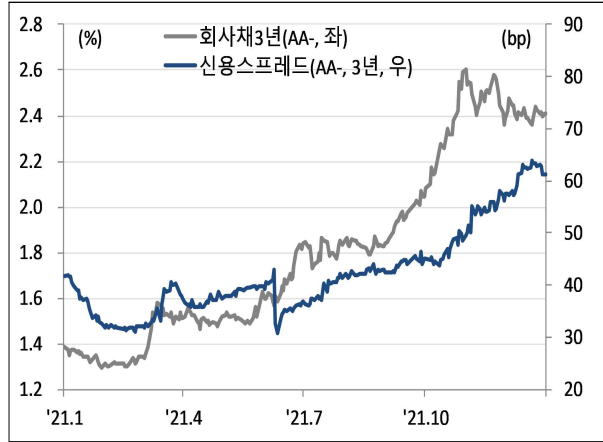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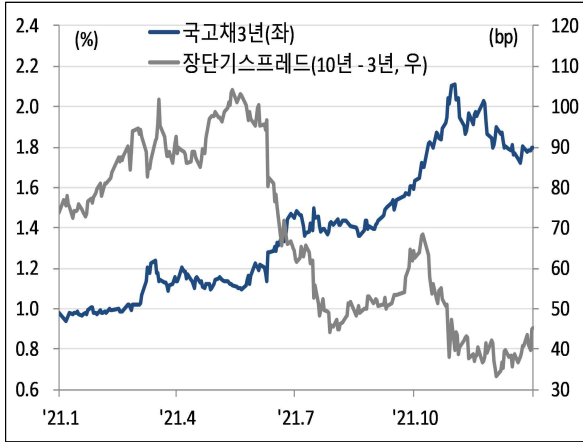
	'19년말	'20년말	'21.11월말	'21.12월말	전월대비
다우존스	28,538.44	30,606.48	34,483.72	36,338.30	+5.38%
유로 Stoxx 50	3,745.15	3,552.64	4,063.06	4,298.41	+5.79%
Nikkei 225	23,656.62	27,444.17	27,821.76	28,791.71	+3.49%

자료 : Bloomberg

(담당자 : 환율 - 천경원, 금리·주가 - 장명화)

# 금리 · 환율 · 주가

**금리** 국고채3년 1.798% (0bp), 신용스프레드 61.3bp (1.4bp ↓)



**환율** 원/달러 1,188.8원 (2.2원 ↑), 엔/달러 115.1엔 (0.72엔 ↑)



**주가** 코스피 2,977.65pt (1.15% ↓), 코스닥지수 1033.98pt (2.64% ↑)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959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http://rd.kdb.co.kr), [kdb.co.kr](http://kdb.co.kr)  
**문의**                787.7818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당행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